

# 목포시,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지역경제 활력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념 30일까지 소비자 할인 혜택·내수 경제 활성화 5000원 할인 쿠폰 1인당 3회 사용 전통시장·온라인쇼핑몰 등 2600곳

목포시가 공공 배달앱 '먹깨비' 할인 이벤트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국가대표 쇼핑 축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를 맞아

오는 30일까지 전남도 민간 협력형 공공 배달앱인 '먹깨비'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260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내 최대규모의 쇼핑 행사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 및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할인은 '먹깨비' 앱에서 1인당 3

회 사용 가능하며 최소 주문금액 1만 5000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의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종료된다.

소상공인의 먹깨비 가맹점 신청은 먹깨비 누리집·먹깨비 고객센터(1644-7817)에서 할 수 있고 소비자는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전남 공공 배달앱이나 먹깨비를 검색한 후 앱을 설치, 회원가입 후 이용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소비진작 분위기가

성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먹깨비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먹깨비는 국내 배달앱 중 최저 중개수수료(1.5%), 가입비 및 광고료 무료,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할인 적용 등 장점이 커,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쯔쯔가무시증 감염 주의 당부 무안군,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

무안군은 최근 가을철을 맞아 쯔쯔가무시증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쯔쯔가무시증은 진드기에 의해 매개되는 감염병으로 발열,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특히 풀밭이나 산책로 등 진드기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활동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전 긴 팔, 긴 바지, 장화, 장갑 착용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털어 세탁해야 한다.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여 진드기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군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마을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안내와 주민들에게 진드기 접촉 예방과 감염병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성철 무안보건소장은 "쯔쯔가무시증은 예방백신이 없는 만큼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며 야외 활동 시 돗자리를 사용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 독감 집중 예방접종 오늘부터 15일까지

무안군은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11일부터 15일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집중 예방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1959년생까지), 13세 이하 어린이(2011년생까지), 임신부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이나 무안군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기기증등록신청자 등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그 외 군민은 백신 소진 시까지 접종비 1만1000원으로 무안군보건소, 각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집중 예방접종기간 종료 후에도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는 접종할 수 있지만 예방접종 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항체가 생기는 데에는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려 최적의 예방효과를 위해 제 시기에 맞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성철 무안보건소장은 "매년 12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11월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 14일 한문철 변호사 초빙 강연

진도군은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오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도군청 대회의실(2층)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의 마지막 아카데미 강연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블리'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 영상을 상황별로 정리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교통 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군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 군민행복 아카데미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입장 가능하며, 올해의 마지막 아카데미 강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며 "2025년에도 군민들을 위해 유익한 강연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해남군 관계자가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할 염화칼슘 살포기를 점검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겨울철 제설장비 사전점검

해남군이 겨울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자체 보유중인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 장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군 보유차량인 8톤 트럭과 임대 예정인 15톤 트럭, 14개 읍면에서 제설작업에 투입

될 1톤 트럭용 제설기와 살포기 등 총 33대에 대해 실시했다.

사전에 14개 읍면을 순회하며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소요부품을 확인한 후 군 제설창고에서 장비제작 업체의 서비스센터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제설장비 점검을 시작으로 제설

작업에 소요될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사전 확보하고 뚜드레재, 갈두재, 오소재에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올 겨울은 예년보다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다"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장비 점검 및 충분한 제설재 확보로 폭설, 도로결빙으로 인한 군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착한가격업소서 지역상품권 결제시 혜택

강진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착한가격업소 14개소에 대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1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에서 모바일·카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적립 받는 방식으로 5000원 이상 결제 시 최대 월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카드 상품권으로 결제 시에만 할인이 가능하며 지류 상품권은 할인되지 않는다.

대상 착한가격업소는 우성식당, 거목촌식당, 청자골식당, 가족회관, 궁전한우촌, 보리소식육식당, 압소한마리, 우정식당, 금성식육식당, 판자촌, 강진칼국수, 행복한밥상, 장가네한우곰탕, 모아미용실로 총 14개소이다.

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하고 있으며 지정 대상은 자영업 개인사업자로 생활과 밀접한 업종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서비스 등 판매하는 업체로, 가맹(프랜차이즈) 사업자는 지정이 불가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은 강진군 소

재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종 가운데 평균 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가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대비 저렴하고 이용 만족도는 높아야 한다.

여기에 위생과 청결은 필수이며 육외가격·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각종 시책을 성실히 이행한 업체가 선정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들은 인증표찰과 함께 7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원받으며 시설개선 및 장비 교체 비용 또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영양플러스사업 우수기관 선정

신안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4년 영양플러스사업 평가에서 영양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업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기관 중 최우수 1개, 우수 11개 기관만 선정되는 이번 평가에서 신안군은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101명(79가구)을 대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 위험 요인 개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섬으로 이루어져 진행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각 읍·면마다 총 14개의 식품공급업체를 선정

하고 식품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화상담, 가정방문을 통해 영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상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상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2024 가구주택 기초조사 실시 무안군, 이달 27일까지

무안군은 오는 27일까지 2024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통계청(주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가 협력해 5년마다 실시하는 대규모 조사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농림어업총조사 실시에 앞서 총조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빈집을 포함한 모든 거처와 약 3만5109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주소, 거처 종류, 빈집 여부, 건축시기, 주거시설형태 등 14개 항목이다.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조사에서 제외하며 조사원들은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가구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

앞서 무안군은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요원 24명을 대상으로 조사지침과 현장조사 요령에 대해 교육했으며 태블릿 pc를 활용한 실습도 병행했다.

강건선 기획실장은 "가구주택 기초조사는 주거지원 정책 수립과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원 방문 시 조사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